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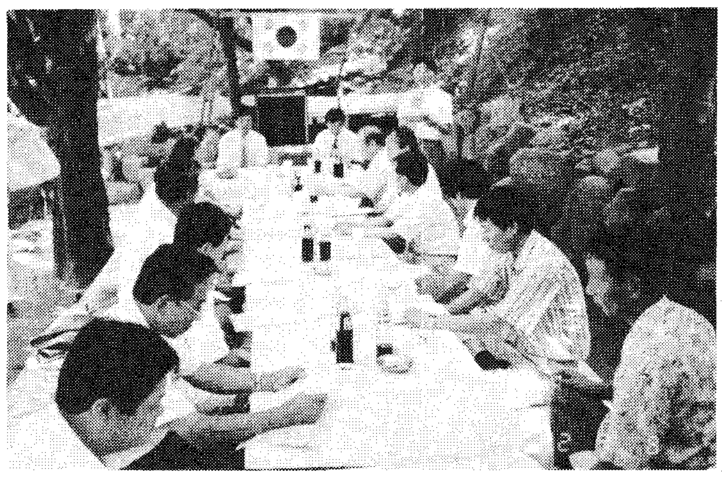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92年度 第2次 理事會 개최

협회는 지난 7월8일 92년도 제2차 理事會議를 우이동 야외에서 소집하고 79년 5월에 제정 시행하고 있는 分事務所규정에 대하여 처음으로 全面개정 작업하였다.



◇제2차 이사회 (92. 7. 8)

제23차 정기총회시 개편된 사항과 行政간소화 작업등 실시

▲이날 회의에는 농촌근황에 비추어 상당한 기우를 한바 있으나 예상 밖으로 이사18명 감사2명, 본부직원 5명등이 참석하므로서 약 70%의 성원을 이루게 되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먼저 宋景太회장은 여러가지 여건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79년 5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각급分事務所規定을 23次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고 작년도 농림수산부감사에서 지적된 行政간소화 문제도 있고 하여 당장 현안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전면 개정작업하고 이자리에 上程을 하였음으로 이지역 주변여건을 감내하면서 진지하게 검토 결론을 맺게 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지난 6月中旬 실시한바 있는 포천지구 현지교육상황을 소개하고 현지에 출강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정말 우리 생산자에 밀접한 산교육이 였고 앞으로 생산단체를 발전시키는데 규범이 될만하였으므로 자매결연등을 제의하며 타지방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육성발전 시켜 보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였으며 각임원 거주지역에도 이러한 산교육을 실시해 볼만 하다고 강조하셨다.

이어 실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정된 議決主文에 對한 소개가 있었다.

○의결주문
①분사무소규정 개정(안) 심의
②재배기술연구위원회 설치(안) 심의
③공판장 임대 보증금 인상안 검토
④기간중 생약 안정기금 현황보고

이날 이사회 진행과정을 다음에 소개하면…

①分事務所규정 改定안 심의 의결…

본회 분사무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종합 제도인 본 규정은 79년 5월에 제정 되어 오늘날까지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었다. 그러나 금년23차 정기총회에서 각종 회비가 인상된바 있고 작년도 농림수산부감사에서 행정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규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오늘 이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 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 시킬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한다는 입안자(사무국장 배영두)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 시간 제약상 전체 개정 사항에 대하여

<3면으로 계속>

連載 韓方순례 >33<

〈續〉

②순환경로인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할 때는 골수가 건강치 못하다.

③뼈는 골수를 보호하는 것으로 오래 걷는다든가 오래 서 있는 것은 골을 피로하게 함으로써 골수를 손상시킨다.

골수는 골의 핵이다.

왜 신장이나 골 또는 골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필요성은 종합적인 건강유지상 필요불가결한 일이겠으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도 열거된다.

뼈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나 압력에 지탱을 못하면 높이 뛰었을 때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사람과 자동차등이 충돌했을 때 뼈가 약하면 골절, 탈골 또는 즉사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뼈가 외부의 힘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대퇴골의 예를 들면 매평방센티당 24·4킬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것이 뼈의 방위체력이다.

스포츠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피하지방만을 논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전술했듯이(신장의 수성은 뼈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면 뼈속의 골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위를 몸시 타게 되며 골수에까지 이 추위를 느끼는 것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하지방의 두께도 필요하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신장의 활력을 존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2、광대뼈는 골격의 강약을 나타낸다

골격의 강약도를 알기 위해서는 눈의 바로 밑에 위치하는 광대뼈를 관찰할 일이다.

이 뼈는 골격의 크기를 나타내줄 뿐 아니라 정력의 정도도 나타내 준다.

이 광대뼈는 골격의 바탕이라 말할 정도로 크면 모든 골격도 크고, 작으면 다른 골격도 작아 쇠약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예로부터의 속언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고 한다.

이는 외형과 성격이 남성형이어서 따라오는 생활의 부조화적인 운명설도 관상학적인 근거있는 견해일지 모르나 그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즉, 광대뼈가 돌출한 여성은 정력이 출중하여 다시 말하면 다음형(多淫型)의 여성이기 때문에 중국 속언도 있듯이 (남편을 요절시키는 여자)란는 것이다.

남편을 요절시키는 여성이 팔자가 순탄할리가 있겠는가?

이같은 생활경험은 남성의 건강수칙으로 소녀방중경(少女房中經) 등에서 1접(接)하되 「설(泄)하지 말라는 경구(警口)가 나왔음직하다.

어쨌든 관골의 돌출은 골격과 신장의 건강도를 나타내주며 이 반대는 골격과 신장의 빈약을 말해준다고 이해한면 된다.

어떤 면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감출 수 없는 약점 또는 강점이 되겠으나 건강도의 솔직한 감시부위인 것만도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강원도지부

지부장 최윤철
원주시 사무소장 황인구 (본부부회장)
철원군 사무소장 박영임
원주군 〃 전승포
영월군 〃 심호섭
춘천시 〃 허수
평창군 〃 함영완 (본부이사)
인제군 〃 이종렬
명주군 〃 최이규
태백시 〃 우대기 (공판장장겸직)
홍천군 〃 박건훈
삼척시 〃 김시부
양구군 〃 강연백
삼척군 〃 김원복
양양군 〃 김항래 (공판장장겸직)
횡성군 〃 조대현
속초시 〃 임원길
동해시 〃 김정태
정선군 〃 전제욱
강원도도공판장장 황성구
평찬군군공판장장 함승주

1992년 7월 20일 현재